

<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<주일말씀 주제>를 인식시켜 주고, <잠언>을 전해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한 절, 한 절 잠언을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섭리사 전 세계 각 나라의 생명들>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.

‘게으른 자’, ‘나태한 자’, ‘영이 죽어가는 자’, ‘마음이
식어 신음하는 자’, ‘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못
하는 자’, ‘홀로 서지 못하는 자’ 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
다. <그들의 죄>를 대신 기도해 주어 ‘용서’ 받게 하고, <그들
의 생명>을 하나님께 맡겨 ‘살아나게’ 해야 된다.

2. 각 나라 한 나라씩 기도해 주고, ‘그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
들’ 이 누구인지 모르니,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해 주기다.

3. <생명>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
‘그 생명’ 을 아시기 때문이다. 또한, 전능자만이 생명을 절대
로 다스리고, 관리도 해 주시기 때문이다.

4. <약속한 기도 시간>을 지켜서 기도하니 기도가 바로 잡히고, 하
나님께 땀땀이 기도하게 되고, 성령도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셨다.

5. <기도>는 ‘일’이다. ‘생명을 구하는 일’이다. 생명을 구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. 마치 집이 무너졌을 때 다시 쌓으려면 5일, 7일, 10일씩 쌓아야만 되듯이, 기도하여 생명을 구해 주는 것도 그러하다.
6. <기도>로 하나님께 간구하여, ‘생명’을 이끌어 내시게 해야 한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심정 일체 되어 간절히 기도하여라.
7. <육의 생명>이나 <영의 생명>이나 죽으면 끝난다. 그러므로 그 얼마나 실수 없이 지켜야 되겠느냐. 오직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야만,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, 구원시켜 주시고, 휴거까지 시켜 주신다.
8. 하나님은 <생명>을 사람들이 다루듯 어렵게 다루지 않으시고, 쉽게 다루신다.
9. <지구 세상의 많은 생명들>을 어떻게 일일이 다루고 살피시냐고 물으니,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나는 생명을 쉽게 다룬다. 지구라는 열차에 생명들을 다 싣고 한 번에 다룬다.” 하셨다.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 그저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, <생명>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, 절대 문제없이 관리해 주시고, 구원시켜 주시고, 휴거시켜 주신다고 확신했다.
10. 지난날 <내 생명>을 죽을 고비에서 60여 번이나 살려주신 삼위일체께 감사 감격하며, 사랑한다고 영계에 들어가 진정 고백

했다. 그리고 이 은혜로 ‘하나님의 일’을 해 드리겠다고 간구하니, 하나님은 “나와 같이 생명을 위해 살아라.” 하셨다.

11. 삼위가 <자기 육의 생명>도 <영의 생명>도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, 모두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지키시는 생명들’을 위해 살아야 된다. ‘그 은혜를 갚으며 사랑하며 사는 삶’이다.